

그 절집의 빛

10 경주 소금강산 굴불사터 사면석불

불보살, 땅 속 바위에서 나투시다

땅 속에서 사방불 바위 나와 굴불사

삼국유사 <탑과 불상>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조에 전한다.

“또 경덕왕(景德王)이 백률사(栢栗寺)에 거동해서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엮물하는 소리가 들려 그 곳을 파게 했더니, 사면에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져 있는 큰 돌이 나왔다. 거기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굴불사(掘佛寺)라고 했으나,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굴석사(掘石寺)라 한다.”

이 나라는 화강암의 나라다. 화강암이 지닌 물성은 영원성과 견고함이다. 그래서 화강암 큰 바위는 예로부터 숭배대상이 되어 치성을 올리는 바위신앙을 형성해왔다. 신라사람들은 그 바위신앙에 불교를 습합(習合)했다. 화강암 바위로 부처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깃든 부처님 형상을 쫓아 낸 것으로 여겼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 바위 속 부처님이 불현전으로 나투셨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대승사 사방불), 부처님 바위가 땅에서 나오고(굴불사 사방불), 바위에 흔적을 남기고 부처님이 사라지신(경주 남산 불무사) 행적을 곳곳에 설화로 남겼다.

경주시내에서 북동쪽으로 포항 가는 7번국도 오른쪽에 소금강산이 있다. 경주의 북쪽 주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177m의 나지막한 산이다. 범용왕 때 불교 공인 과정에서 박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솟구쳤고 목은 날아가 북쪽 산에 떨어졌다고 전하는데, 목이 떨어진 그 산이 소금강산이다. 백률사(자주사)가 있는 순교(殉教)의 공간이다. 백률사 오르는 계곡에 굴불사 사면석불이 있다.



사면석불의 서쪽에 경영한 아미타삼존불. 아미타불의 얼굴은 따로 제작해서 바위면의 몸체와 결합했다. 좌우협시불 역시 따로 제작한 원각불이다.



동쪽 면의 약사여래불. 상반신은 고부조이고, 하반신은 저부조로 새겼다.

바위 네 면에 8구의 불보살 조영

굴불사 사면석불 바위는 긴 폭이 4m, 높이가 약 3.5m의 크기로 네 방위의 사면(四面)을 갖춘 입방체다. 하지만 탑신의 직육면체 같은 정형을 갖춘 것이 아니라, 네 면을 가진 부정형 자연 바위다. 네 면에 8구의 불보살이 대단히 밀도 높은 공간구성으로 배치해 있다. 특이하게도 조형은 자유분방하고, 또 각 면의 조형기법이 저마다 다르다. 석조조형, 혹은 마애불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형기법이 망라되어 있다. 전방위의 조각기법인 환조, 곧 원각불(圓刻佛)을 비롯해서 높은 돌을 새김(고부조), 낮은 돌을새김(저부조) 등의 양각 기법과 회화적 선각(線刻)의 음각기법까지 두루 동원하고 있다. 조형기법 뿐만 아니라 조형양식과 조형에 흐르는 미의식에서도 사차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투박하고 고졸한 토착화한 신라양식부터 인도 굽타양식을 수용한 성당(盛唐)양식까지 색다르다. 바위 하나에 토착의 전통과 새로운 국제문화의 미술양식이 혼재해서 독특한 진경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불보살의 조형은 32상 80종호에서 보듯 조형규범이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 굴불사 사면석불에서는 사면에서 조금씩 다른 조형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조형에 사차를 둔 시대적 편차인지, 동시대 조형 주체의 기술력 차이, 혹은

마애불은 바위신앙과 불교 습합의 산물

환조, 고부조, 저부조, 선각 등 조각 다양상체는 고부조, 하반신은 저부조로 새겨 남면 두 불상은 감산사 두 불상과 천연성



남쪽면의 이존불. 원래는 삼존불로 전해진다. 감산사 불상과 천연성이 같다.

석불도 그런 법칙과 규범을 따르고 있다. 단지 서쪽과 남쪽 방위에서 삼존불, 또는 이존불 형식의 협시불을 모시면서 사방불이라 하기에 애매모호한 모양이 된 것이다.

몸체는 바위에, 얼굴은 따로 조각해 결합

굴불사 사면석불 조형의 중심은 배례단이 마련되어 있는 서쪽 면이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은 사면석불의 조형 중에서 가장 크다. 아미타 본존상은 바위에 고부조로 새겼지만, 두 협시보살은 별석(別石)으로 환조한 원각불이다. 이러한 형식은 선산도 마애삼존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협시보살을 따로 별석으로 만든 것은 재료바위의 화폭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협시보살은 목과 허리를 지그재그로 살짝 튼 삼곡(三曲)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형에 부드러운 세련미가 엿보인다. 그 같은 조형기법은 동시대 서역, 인도, 중국에 걸친 활발한 문화교

류와 국제적 조형양식을 보여준다. 좌협시불은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 중앙에는 아미타여래 화불을 모시고 있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우협시보살은 상체와 얼굴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계신다. 조형에 따라 불보살의 삼매아형으로 들고 계시는 지물에 차이를 보이곤 한다.

서쪽 면의 조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별석을 통한 조형의 결구방식이다. 아미타 본존불의 조형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몸체는 원바위에 높은 돌을새김으로 조형한 뒤, 그 몸체에 다시 얇은 저부조로 옷주름을 배필했다. 그런 몸체 조형에다 얼굴을 다른 돌로 조형해서 축과 철심을 시설해서 몸체와 연결하고 있다. 몸체는 커다란 바위에 조영하고, 얼굴은 별석으로 조각해서 철심이나 축으로 결구하는 특유의 방식인데, 굴불사 사면석불이 그 시원으로 여긴다. 이같은 기법은 산속 대형석불 조성에 계승되어 나타났다. 경주 남산 약수계 약사마애대불, 안동 제비원 석불,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쪽 면은 약사여래불 한 분을 모셨다. 결구부좌한 채로 눈을 내려 감고 있어 깊은 선정에 든 모습이다. 왼손엔 동근 보주를 들고 계신다. 조형에서 위엄과 근엄함이 우리나라 옷 매무새를 돌아보게 한다. 바위의 경사면은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바위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지 한 조형에 양각의 깊이에 상당한 차별을 줬다. 얼굴과 상체 부위는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로 새기고, 하반신으로 내려올 수록 저부조로 표현했다. 불륨감이 나 괴체의 양감은 아래로 내려올 수록 급격히 약해지는 경향이다. 경주 남산 삼릉계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한 한국 마애불의 대다수가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스듬한 바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거나 중심 대상에 대한 집중과 부각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법을 통해서 불보살이 마치 바위 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몸을 일으켜 나오는 시각적 효과도 거두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북쪽면에 11면6비 관음상 선각

백제계 마애불은 서산마애삼존불상, 태안 삼존불상에서 보듯 고부조의 입체성이 강한 데 비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계 마애불은 윤산, 포항, 고령 등에서 발견되는 암각화의 전통이 강해 선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뿌리 깊은 암각화 전통 속에서 신라계 조형미술은 바위에세워서 도회화적 선각의 토착적 특성이 곧잘 드러난다. 굴불사 사면석불의 북쪽면은 그런 전통의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북쪽면은 고부조의 양각과 선각의 음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색적인 면구성을 하고 있다. 고부조는 미륵불이고, 선각으로 음각한 조형은 국내 유일 사례의 석조물로 알려진 11면6비 관음보살이다. 11면의 얼굴과 여섯 팔을 가진 희귀한 변화신의 관음이다. 관음보살의 대자대비의 상징적 표현일 것인데, 그 배대에 있어서 석가모니 본존불 뒤에 십일면관음보살을 배치한 석굴암의 조형원리와 닮아서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미륵불계서 착의한 천의는 쉬폰처럼 바람에 하늘거리며 윤희적인 우아한 선율로 흘러 내려 눈길을 머물게 한다.

남쪽면의 조형은 통일신라시기의 우아하고 세련된 예술적 미감이 돋보인다. 휴먼 스케일로 구현된 사실주의적 경향이다. 원래는 석가여래 삼존불로 전해지는데 지금은 아꼈던 이존불로 남아 있다. 남쪽면에서 받는 인상은 무엇보다 감산사(甘山寺) 아미타여래와 미륵불과의 천연성이다. 풍부한 양감과 인체 굴곡의 육감적 묘사, 유려하고 세련된 여성미의 구현 등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다.

조형 속에 인도 굽타양식과 국제적인 성당문화 화를 직접 수용하고 재해석한 통일제국으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사면석불 조형 속의 빛은 신라 천 년의 문화가 절정으로 꽃피우는 바야흐로 오월의 봄 날이다. 땅 속 바위에서 나투신 불보살, 신라 천 년의 불국토에 광명을 놓으셨다.



노재혁(불교미술사작가)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칩 밀납양초 공장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실외 양초 공양집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격 : 59mm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 심산자
- 관단향
- 후리지아
- 라일락향
- 밀감향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곡길 131-14